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 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이혼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

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 그 밖에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한국가정법률상담소-